

문화



김래원의 영화 속 클래식 이야기



가끔씩 할리우드 영화를 감상하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영화에 비해 웅장할 수 밖에 없는 제작 규모나 특수 효과같은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오락 영화에서조차 클래식 음악에 관련된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영화적인 코드와 일치시키는 장면들을 볼 때는 그들이 가진 예술에 대한 식견과 활용 능력이 부러워진다.

대표적인 오락 영화라고 할 수 있는 22번째 007 시리즈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조차 이런 장면이 목격된다. 이언 플래밍이 창조한 007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민한 두뇌 플레이로 헤쳐나가는 스타일인데, 007역을 맡은 다니엘 크레이그는 다소 마초적인 007을 연기한다.

이런 마초적인 007이 뛰고 나는 영화 속에 놀라게도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의 실황 공연이 등장한다. 그것도 일반 오페라 극장의 무대가 아닌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야외 실황 무대다. 중부 유럽의 산속에 숨어있는 보덴 호수에서 벌어지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호수 위에 떠있는 무대에서 오페라를 공연한다. 그 놀라운 무대 스케일과 합창단, 무용단의 규모는 처음부터 관객들을 압도한다.

영화 속에서는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토스카의 공연 장면이 그대로 등장한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2년에 한 번씩 초대형 무대 세트를 바꾸고 레퍼토리를 새로 올린다. 영화에는 2007·2008 시즌의 토스카 실황 공연을 그대로 사용했다. 아마도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이 호수 위 무대에서 초대형 눈동자가 갈라지며 합창단이 앞으로 돌출하는 압도적인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오페라 토스카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노래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카바라도시가 부르는 '별은 빛나건 만'과 토스카가 부르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아리아는 많은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곡이다. 사랑하는 카바라도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스카르피아 남작에게 몸을 내어줘야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토스카가 부르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는 잊을 수 없는 여운을 각인시키는 노래다.

최근 접하기 쉬운 녹음으로는 안젤라 게오르규와 로베르토 알라나 주연을 맡고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음반을 권하고 싶다. 이 음반은 영화와 함께 제작되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인데,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지휘자의 열정적

영화 '퀀텀 오브 솔러스' 중 푸치니 '토스카'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의 실황 공연이 등장한다. 그것도 일반 오페라 극장의 무대가 아닌 브레겐츠 페스티벌의 야외 실황 무대다. 중부 유럽의 산속에 숨어있는 보덴 호수에서 벌어지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호수 위에 떠있는 무대에서 오페라를 공연한다. 그 놀라운 무대 스케일과 합창단, 무용단의 규모는 처음부터 관객들을 압도한다.

영화 속에서는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토스카의 공연 장면이 그대로 등장한다.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2년에 한 번씩 초대형 무대 세트를 바꾸고 레퍼토리를 새로 올린다. 영화에는 2007·2008 시즌의 토스카 실황 공연을 그대로 사용했다. 아마도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이 호수 위 무대에서 초대형 눈동자가 갈라지며 합창단이 앞으로 돌출하는 압도적인 장면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인 반주에 실린 안젤라 게오르규, 로베르토 알라나 부부의 노래가 압권이다. 하지만 토스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 한 명의 가수. 바로 저 유명한 마리아 칼라스이다. 1942년 21세때 그리스 초창 무대에서 처음으로 토스카를 연기한 이후 1965년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토스카를 노래했다. 녹음도 몇 차례에 걸쳐 남겨놓았는데, 칼라스 팬들은 그녀가 스테파노와 함께 노래한 1953년 음반을 최고로 꼽는다.

특히 그녀가 부르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는 기교와 가창의 완성도를 떠나 청자의 심금을 울려버린다. 칼라스는 정말로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았던' 토스카 그 자체였다.

<독립영화감독·음악칼럼니스트>

상설공연 버전으로 만난 뮤지컬 '화려한 휴가'

광주 대표 브랜드 작품 가능성 보여줬다

규모 축소됐지만 배우들 연기·변화된 도입부 인상적 지역 배우들 참여 의미... 계엄군·시민군 갈등 아쉬움

■ 공연 리뷰

'광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작됐다. 광주시립예술단체는 올해도 발매 작품을 선보이며, 광주문화재단도 시도지원사업 등을 통해 옛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시절부터 다양한 작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대부분 공연이 '일회성'으로 그치고 만 점은 아쉬웠다.

그런 점에서 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맞아 첫선을 보였던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지속적인 공연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9년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대극장 버전으로 만들어져 광주와 서울에서 공연됐고, 지난해에는 '갈라쇼'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해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특성화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올해 '상설공연' 버전을 내놓았다.

지난 28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 '화려한 휴가'는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작품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작품이 소극장 버전으로 축소되면서 영상이 사라지는 등 아쉬운 점이 보이기도 했지만 작품에 몰입하는 데 방해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번 상설 공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입부다. 2010년 버전과 달리 도청에서 사

망한 인봉 부부의 딸인 '하늘이'가 결혼을 앞둔 신부로 등장, 새로 작곡된 '눈물의 신부'를 부른다.

이 장면은 마지막 피날레 장면에서 메인 테마곡인 '소풍'을 '부모님'과 함께 부르고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과 연결되면서 감정의 상충을 돕는다.

배우들의 연기는 인상적이었다. 특히 주인공 신애로 출연한 손현정은 감정을 뽐내며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탄탄한 연기력으로 작품에 인상적인 수를 놓았다. 민우역으로 출연한 이승근씨 역시 매력적인 음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뮤지컬 넘버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계속 흥얼거리게 만든다. 첫부분에서 신애와 민우가 부르는 '다시 부르는 사랑'은 작품 곳곳에서 주요 모티브로 흐르며 감성을 두드러고 '광주 내사랑', '소풍' 등도 귀에 감긴다.

두번째 공연이었던 양상블의 호흡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 뮤지컬 경험이 별로 없는 지역 배우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연습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번 작품에는 지역 배우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하늘이 역을 맡은 정재희씨를 빼고는 어렵게도 노래와 연기가 어우러진 주요 배역으로 출연하지는 못했지만 무엇보다



상설공연 버전으로 다시 무대에 올려진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작품의 규모는 축소됐지만 감동은 여전했다.

양상블로 참여한 젊은 배우들에게는 값진 경험이 될 것이 분명하다.

아쉬운 점도 눈에 띄었다.

병원에서 창수가 죽는 장면 등 관객들의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목에서 '여운'이 너무 없는 점은 아쉬웠다.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현재의 관객들에게 가장 큰 메시지를 던지는 마지막 도청 장면 역시 좀 더 깊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상설공연 버전으로 바뀌고 출연자들이 10여명 줄어들면서 계엄군과 시민군의 갈등 등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해 군중신들이 다소 반복적으로 전개된 점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시간 40분(중간 휴식 포함)이 넘는

러닝타임은 관객들의 몰입을 위해 조금 축소하는 게 필요할 듯하다.

이날 객석의 연령층은 다양했다. 5월의 현장을 지키고 기억하는 중년의 관객들과 함께 자리를 지킨 중고생들이 '5월 광주'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작품이었다. 무엇보다 5·18이라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에 다소의 무거움은 떨칠 수 없는 태생적 특성을 감안하면 '화려한 휴가'는 그 무거움에 매몰되지 않은 점이 인상적이다.

이번 공연은 오는 2월22일까지 계속된다. 티켓 가격 일반·대학생 3만원, 초·중·고생 2만원. 문의 062-655-35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음악협 9대 회장에 김남경씨 선임

광주음악협회 9대 회장으로 김남경(54·송원대 교수)씨가 선임됐다.

광주음악협은 지난 28일 광주예술고 학예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김씨를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선거에는 당초 후보로 등록했던 제8대 윤재근 회장은 투표 전에 자진사퇴, 김남경씨가 단독 후보가 돼 신임회장으로 추대됐다.

조선대 음악교육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씨는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아카데미 하계코스, 이탈리아 로마 국제아카데미(A.I.D.M) 만점 졸업 등의 경력이 있으며 10여차례 독창회를 개최했다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등 많은 오페라에 출연했으며 연주회 회원, 백악회 회



원, 광주오페라단 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김씨는 공약으로 아마추어 합창단·관현악단 지원 및 시민음악제 개최, 전공 학생들을 위한 동·하계(무용산, 지리산)음악캠프 개최, 음협공쿠르 유치부와 대학부·장년부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회장으로 임영빈(서강중 교사), 김유정(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윤대근(고구려대학 교수)씨가, 감사로 김종필(중앙중 교사), 구희영(서영대 교수)씨를 선임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이곳은 어디일까

김재일 개인전, 2월2일~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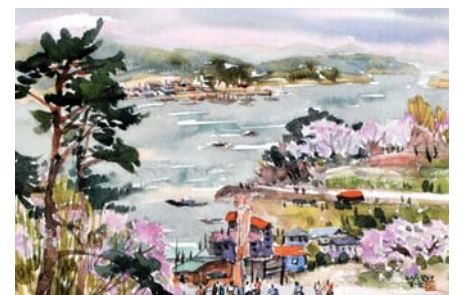
한국화가 김재일씨가 오는 2월 2일~8일 광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영암 월출산, 제주 섬지코지, 영광 외돌바위 등 국내 곳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 선사한다.

짙빛 하늘과 성산 일출봉, 바다가 조화를 이룬 '성산포의 겨울'과 파도를 건넌다고 있는 제주 바다의 생명력을 담은 '제주' 등 바다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또 흥매가 흐드러지게 핀 섬진강 풍경을 형상화 한 '알록의 봄'과 꽃이 핀 농촌 풍경을 묘사한 '화산 도토리' 등 서정적인 농촌 풍경도 정겹다.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조선대 대학



'봄의 알록'

원을 졸업한 김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지금까지 1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시전, 한국화대전 심사위원과 한국미협 이사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6-2520.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sojang Hotel. Title: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Hopeful New Year is bright). Includes menu prices: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Location: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Website: www.geumssojang.com

Advertisement for U-square restaurant. Title: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Includes images of food and price list: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Location: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Advertisement for U-square Sauna. Title: 유스퀘어 사우나. Includes list of facilities: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Location: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